

## 제13대 종령 지성 대종사 공식 임기 시작

2월 17일부터 6년 간, 4월 추대법회 봉행 예정



종령 지성 대종사

불교총지종 제13대 종령 지성 대종사의 공식 임기가 지난 2월 17일 시작됐다. 임기

는 이날로부터 6년 간이다. 지성 대종사는 지난 1월 11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개최된 제152회 승단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새 종령에 추대됐다.

종령 지성 예하는 1946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해 총지종 창종 당시부터 종단과 인연을 맺어 종조 원정 대성사에게 밀교법과 가르침을 받았다. 특히 종령 예하는 종조님 재시 친견 당시 “부처님 대답만이 원만한 것이니, 매사에 불공하라.”며, “말이 행동을 따르는 법이니 힘들어도 잘되리라 믿고 그렇게 마음먹어 감사할 줄 알고 매사 지극하게 정성껏 행하는 것이 법계가 사람을 돕는 이치다.”는 말씀을 가장 큰 법문으로 삼고 진언행자의 삶을 숙명으로 20년 간 용맹정진 해왔다.

그 후 1993년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을 수료, 전법관정수계를 받고 스승의 길에 올랐다. 교화와 전법에 매진하며, 통리원 재단

사무국장, 재무부장, 총무부장, 총지종유지재단 및 사회복지재단 이사, 사감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0년 제16대 통리원장에 선임돼 종단 종무행정을 총괄했다.

통리원장으로 재직 시에는 ‘화합과 소통하는 종단’을 캐치프레이즈로 남다른 통찰력과 지도력을 발휘하며, ‘경로법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와 ‘통일음악예술제’, ‘괴산 수련원 개발 사업 등 종단의 주요 사업을 완성도 있게 정착시켰으며, 대외적으로는 종단협의회뿐 아니라,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BTN불교TV, BBS불교방송의 이사로서 한국 불교 발전에도 앞장서 왔다. 교화와 종단 발전을 위해 진력하다 2016년부터 기로원에 들었으며, 올해 제13대 종령에 추대되었다.

한편 제13대 종령 추대법회는 상반기 진호국가 49일 불공이 회향되는 오는 4월 8일 이후 봉행될 예정이다.

박재원 기자

## 본산 총지사에 승강기 설치된다

사부대중 한뜻 서원에 통리원장 ‘화답’



본산 총지사에 승강기 설치 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총지사(주교: 목경 정사)는 교도들의 뜻을 받아 ‘총지사 승강기 설치 불사’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입재부터 공식불공 특별 서원사항으로 추가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원만 성취 이루어지기를 발원해 왔다.

이에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지난 2월 28일 통리원에서 제206회 원의회를 소집하고, 총지사 승강기 설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 원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총지사 승강기 설치 불사를 적극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고, 중앙총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

총지사는 총 3층 건물로 1층은 주교실과 접견실, 공양실이 있으며, 2층은 종조 전인 원정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서원당은 맨 위층에 자리해 연로하신 스승들과 어르신 교도들의 이동과 안전에 많은 불편함을 안고 있었으며, 종단의 주요 법회와 행사가 가장 많이 봉행되는 장

소로 이용의 편의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곳에서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설치될 승강기는 ‘리프트’ 형태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리프트는 간접 유압식으로 승강기와 안전면에서 동일하며, 또 탑승 인원도 비슷하다. 이에 비해 시공 비용이 저렴하고, 전문 인력이 없는 사원의 경우 사후 관리면에서도 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총지사는 1975년 3월 현 역삼동 총본산 건설 대지 매입을 시작으로, 1978년 1월 19일 수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종단 총본산으로서 건설이 완성됐다. 당시 재정적이나나 건축 과정에서 부딪친 온갖 어려움들을 물려섬 없이 헤쳐나갈 수 있게 나선 교도들의 원력은 총지사 성불탑에 아로새겨 있다. 한국불교계에 생활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와 활력을 불어넣은 총지사는 현재 40여 년 만에 교화 발전의 일대대약을 예고하는 대작불사를 맞이하게 됐다.

박재원 기자

## 총기 53년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입재

2월 20일부터 전국 사원서 스승과 교도 동참



총기 53년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이 전국 각 사원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2월 20일 입재에 들어갔다. 진호국가불공은 밀교의 호국경전인 『수호국계 주다라니경』에 근거해 총기 4년인 지난 1975년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제정하고 그해 5월 5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해 정진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자녀 잘되기 불공을 병행해야 된다’며 특별기도 중의 하나로 제정하셨다. 한해에 상·하반기 각각 49일간 봉행되며, 이번 상반기 49일 불공은 내달 8일에 회향한다.

사진=총지사 서원당 박재원 기자

### 종/조/법/어

남모르는 선일수록 그복과가 무량하고  
남모르는 악일수록 그 재화가 더욱 크다

### =지 면 안내

4면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7면 총지종의 역사

9면 교도수행체험담 ⑨  
10면 불교로 여는 삶 ⑩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동해인!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축하합니다.

3월 4일(월)  
10시 30분 대강당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일로 19-39(명륜동) Tel.051.555.4456





특경 정사의  
총지 돋보기<sup>(8)</sup>

## 준제관음보살 ㉔

창종을 두 달여 앞둔 1972년 10월 3일,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준제관음상 조성을 시작하여 창종 이듬해인 1973년 1월 6일에 완성하셨다. 준제관음법은 종조님의 입교개종의 정신과 대서원, 총지종의 교화 정신을 담고 있다.

준제관음법이란 준제관음보살의 진언으로 염송수행하는 법을 말한다. 이 법은 『대승장엄보왕경』과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근거한 것이다. 『대승장엄보왕경』은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을 설하고 있는 밀교경전이다. 이에 근거하여 종조께서는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을 본존으로 모셨던 것이다. 이 육자진언을 본존으로 모시면서 여기에 덧붙여 종조께서는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모습인 준제관음보살을 중심진언으로 삼으셨다. 이 두 진언을 함께 지송해야 상승적 공덕이 있음을 깨달으셨던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을 교화하는데 있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형체로 변화하여 나타나는데, 이를 ‘보문시현’이라 하며 대표적인 변화관음보살이 준제관음이다. 준제관음보살을 육자진언과 함께 중심의 깨를 삼은 것은 『대승장엄보왕경』과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서 육자진언과 준제보살의 진언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육자대명진언 108편을 염송하라! 진언은 ‘옴마니반메훔’이다. 만약 이 진언으로 머무는 곳마다 염송하면 무량한 제불보살들과 천룡팔부 신장들이 집합하고, 또한 무량삼매 법문을 갖추게 된다. 지니고 염송하는 지송인의 칠대 종족까지 모두 해탈을 얻게 되고, 뱃속에 있는 모든 기생충까지도 모두 보살위를 얻게 된다. 이런 사람은 나날이 육바라밀 원만공덕을 얻게 되고, 무진변재를 얻어 청정지를 얻게 되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를 타인이 접촉하게 되어도 일체 모든 성법의 독소를 여의어 보살위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종조 대성사께서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

을 본존으로 모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답은 창종배경과 입교개종의 정신에서 읽을 수 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창종이념을 해방과 전쟁의 참상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있는 일체중생들을 제도하는 데 두었던 만큼 그에 상응한 불보살인 관세음보살을 본존으로 삼았던 것이다. 세간의 중생을 구원하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므로 원정 대성사의 구국도생의 대비원에는 마땅히 관세음보살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을 설하고 있는 『대승장엄보왕경』은 총지종의 소의경전인므로, 관세음보살이 총지종의 교의와 수행체계에 근간이 된 것이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형상불로 모시지 않고 굳이 진언 다라니로 모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본존은 진언다라니의 범자로 하면서 준제보살을 형상불로 한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밀교종단임을 표방하기 위한 원정 대성사의 사상과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로자나 불은 진리의 세계로 흔히 ‘이불(理佛)’이라고 표현한다. 진리의 세계는 유형무형이다. 당연히 형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주삼라의 모습을 불상이 아닌 다른 상징적 형상을 모신다고 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진리의 말씀인 진언다라니를 모시는 것이 더욱 밀교적인 것이다. 진언다라니를 그대로 본존으로 모신 것은 마음에 상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마음의 깨달음, 진리를 세운다는 뜻이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중심진언으로 지송하고 있는 종단의 입장에서 진언 다라니의 범자 그대로 본존으로 모시는 것이 교의적으로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는 이상 두 개의 진언을 본존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준제보살은 달리 상으로 모신 것이다. 총지종단에서 형상불은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를 같이 해왔다. 단지 정착되지 않았을 뿐이다.

# 준제관음보살, 큰 빛으로 세상에 나투다

종단, 올해 부처님오신날 맞아 봉축 대형 장엄등 조성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종단은 준제보살상을 봉축 장엄등으로 모신다. 종단은 한국전통등연구회(대표: 백창호)와 함께 현재 디자인을 완성(좌)하고, 높이 4m, 폭 2.5m 규모의 장엄등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본 디자인은 현재 원정기념관에 소장 중인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직접 그리신 준제관음보살상(우)을 근간으로 제작되었다.

준제보살의 모습은 세 개의 눈과 열여덟 개의 팔(삼목십팔비)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준제보살의 팔이 많은 것은 관음보살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지혜와 중생구제의方便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상징한다. 몸은 백황색이고 붉은 연화 위에 앉아계시는 것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준제보살은 종단의 주된 의례인 준제법의 모태가 되는 보살로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7억이나 되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자, 모든 곳에 두루하시며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가장 청정하신 분이다.



## 법수원 지수 열반 1주기 추선불사 봉행



법수원 지수 열반 1주기 추선 불사가 지난 2월 3일 광주 법황사(주교:인선 정사)에서 봉행됐다. 통리 원장 우인정사를 비롯한 스승들과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수원 지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엄수 되었다. 법수원 지수는 광주 법황사 초대 주교로써 일평생 중생 교화에 매진해 오다 지난해 세수 86세, 법랍 41세로 입적했다.

## 신교도 환영 발원문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총지사 오명숙, 장수연, 정성락, 정원석, 최혜연 신교도가 비로자나부처님과 제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으로 슬기로운 불자가 되어 온 가족이 밝고 행복한 생활이 되게 하시고, 원하는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지심으로 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 총지신문에서는 신교도 환영 발원 코너를 신설합니다. 각 사원의 신교도 이름을 보내주시면 동참 발원하겠습니다.



##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 전국 사원, 설날 합동 차례 불공 봉행

조상은혜 감사, 조상영식 왕생성불 서원



설을 맞아 부산 정각사 특락전(좌)과 수인사 서원당(우)에서 합동 차례 불공을 올리고 있다.

갑진년 설을 맞아 전국 사원에서는 설 당일인 2월 10일 합동 차례 불공을 봉행했다. 본산 총지사(주교: 목경 정사)를 비롯한 부산 정각사(주교: 범일 정사), 포항 수인사(주교: 범상 정사) 등 교구 주요사찰을 비롯한 사원의 서원당과 특락전에서는 오후 1시부터 선망 부모와 조상 영식의 왕생성불을 서원하며,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불공에서 동참자들은 범신비로자나부처님과 제불보살님께 조상영식을 서방정토로 인도하여 일체 고통을 멸하고 서방정토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또 새해를 맞아 지극한 마음으로 불공을 리며 갑진년 한해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일체 서원이 이루어지고 원만히 성취되기를 지심으로 발원했다.

범일 정사는 “내 조상이 바르게 천도되어야 내 자손들이 바른길로 가게 된다. 내 마음 닦고 닦아 밝게 살아가시기를 서원한다.”며, “가족과 후손들의 정성이 가닿았으니 모든 영식들이 아미타불의 거룩한 명호를 수지하고 극락세계에서 반야지혜를 증득하여 무상보리를 이루게 되실 것이다.”고 축원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감사장 수여 정각사 신정회 황영순 회장



부산 정각사 신정회 황영순 회장이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장으로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케어머니봉사단으로 활동 중인 황 회장은 지난 2월 21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평소 남다른 열의와 봉사정신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솔선수범하고, 나눔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정각사 주교 예방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옥희) 소속 각 사찰 합창단 단장들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월 14일 신년하례 차 정각사를 방문하고 주교 범일 정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만다라합창단 안미옥 단장을 비롯해 연합회 김옥희 회장 등 임원진과 삼광사 화엄합창단 단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불음포교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 사회진화론

지혜의 눈

미국서 기독교와 결합...동아시아에 전파  
식민지배 정당화 활용, 친일파 득세배경

최근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논픽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저자인 ‘물루 밀러’는 피바디상을 수상한 과학 전문 기자로 책의 내용은 생물학자이자 스탠퍼드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일생을 살피는 과정을 자신의 자전적 내용과 결합하여 이야기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장하면서 우물증을 겪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이성을 사귀어 동거합니다. 그러다 휴가지에서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이 사실을 안 동거남자는 떠나갑니다. 아마 저자는 젊은 시절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무언가 모델이 될 사람으로 동물학자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생애를 탐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던은 강한 의지를 갖고 어류에 관한 분류를 연구하여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물고기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학문적 업적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연구업적이 바탕이 되어 스탠퍼드 대학의 총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조사를 해나가면서 그가 지독한 우생학 신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저자는 조던의 생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무언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얻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저자인 물루 밀러는 조던의 삶을 살펴볼수록 그의 어두운 이면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던이 맹신했던 우생학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분야이지만 우생학은 오랫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품종개량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것을 19세기에 인간에게도 적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우월한 인종과 민족이 승리하고 열등한 인종과 민족이 패한다는 우생열패(優勝劣敗)의 사회진화론과 연결되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산됩니다. 우생학과 사회진화론은 서구사회에서는 나

치즘에 의해 유대인과 집시의 집단 학살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인류를 전쟁과 학살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드는 데 일조한 사상체계였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지식에 해당합니다.

한편으로 이 사회진화론은 영국에서 탄생하였지만 미국에 건너와서 널리 퍼졌습니다. 다시 기독교와 결합하여 동아시아에 전파됩니다. 조선은 열등한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소위 선진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개화사상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나아가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격퇴한 일본에 자극을 받아 선진문물을 수용해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많은 수가 친일파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들 중 일부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서구화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고 전통적인 사상과 믿음체계는 미신으로 비판하였습니다. 한국사회가 동아시아 국가 중 전통을 방기하고 서구화된 대표적인 나라가 된 배경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주를 카오스와 코스모스로 구분하였습니다. 저는 혼돈의 우주인 카오스에서 질서의 우주인 코스모스로 변화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수만큼 많은 우주가 있는 셈입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은 현대 과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단지 과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개인에게도 새로운 자각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반드시 종교적 주제를 탐구하는 것만이 삶의 의미를 알아가는 길이 아니라, 과학에 의해 우주와 생명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럼니스트 김태원

##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5,000



편보리수 108염주

₩ 40,000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중조법설집』

## 만다라, 진리의 본질 가르키는 법신 대일여래의 경지

제1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1절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6. 만다라(曼荼羅)의 기초지식(基礎知識)

이 세상(현세現世)을 한마디로 표현(表現)하기는 극(極)히 곤란(困難)하다. 마찬가지로「만다라(曼荼羅)」라고 하는 의미(意味)도 한마디로는 좀처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반에게 알려지고 있는 의미는 인도(印度)의 산스크리트어의「만다라」를 한음(漢音)으로 음역(音譯)한 것이「만다라(曼荼羅)」라고 한다.

만다(曼荼)는 본질(本質) 또는 심수(心髓)이고 라(羅)는 얻는다는 해석으로서 ‘본질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본질(本質) 그 자체(自體)’ ‘일체제법(一切諸法)을 구족(具足)한 것’이라는 오리(悟理)의 경지(境地)를 표현한 하나의 세계를 목전(目前)에 제시(提示)한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經典)의 주석(註釋)에 의하면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의 본질(本質)’로서 얻어진 경지는 이 이상 없는 우승(優勝)하고 순정(純正)한 것이며 평등원만(平等圓滿)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다라는 평면(平面)이지마는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앞에서 입체(立體)가 되고 피가 통(通)하고 있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구경(究竟) 보는 자(행자行者)와 보이는 측(側-만다라)의 상대적(相對的) 관념(觀念)은 생명(生命)에 의하여 관계(關係)가 맺어져서 길러져(육성育成) 가는 것이다.

잘 관찰하면 무량(無量)한 복지(福智)의 공덕(功德)이 취집(聚集)되어 있다. 그리하여 신(身), 구(口), 의(意)의 삼밀(三密)이 원만(圓滿)하게 지배(支配)하고 있다. 즉 그 원만(圓滿)함을 우주간(宇宙間)의 신체상(身體上), 언어상(言語上), 정신상(精神上)의 모든 활동(活動), 다시 우주(宇宙) 그것의 경지(境地)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存在)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 본질적(本質的)인 것을 의미하는 보리(菩提)는 대일여래(大日如來)의 경지(境地)다. 우주의 삼라만상(森羅萬象)의 구석구석까지 대일여래(大日如來)를 떠나서는 존재(存在)하지 못한다. 우주(宇宙)가 곧 대일여래의 자체(自體)인 것이다. 왜냐하면 대일여래의 삼밀(三密)은 삼세(三世-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十方(十方)에 편만(遍滿)하여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삼밀이 원만(圓滿)하다 함은 만다라에 무수(無數)한 불보살(佛菩薩)이 시현(示現)되어 있는 것이다.

만다라(曼荼羅)라고 하는 무대(舞臺)는 석존(釋尊)만이 깨달음의 경지(境地)에 들어가는 특정(特定)한 좁은 장소(場所)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종자(種子-보리심)를 가지고 더욱 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인정(認定)하는 세계다.

다른 방향(方向)으로 보면 이 감각(感覺)을 마음에 머물게 한 것이 자성만다라(自性曼荼羅)다. 자성(自性)이라 함은 마음속에 비장(秘藏)한 인간의 무한(無限)의「에너지」이며, 깨달음이란 이렇게 가장 순화(純化)된 에너지가 완전 연소(燃燒)될 때에 일어나는 일찰나(一剎那)이며 하나의 정적(靜寂)이다.

만다라(mandala)는 밀교를 대표하는 예배의 대상이자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관상수행의 매개이다. 밀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술이기도 하다. 어원으로 보면 원을 뜻하는데, 모나거나 빠진 것 없는 완전한 형상으로 우주, 진리,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진리의 본질을 가리키니 법신 대일여래의 경지를 뜻한다.

지금은 티베트불교의 영향으로 만다라의 이름과 모습이 꽤 알려져 있고, 심리치료와 컬러링으로 소개되면서부터는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친근하게 접하고 있지만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아주 낯선 존재였다. 소설과 영화로 선보인 ‘만다라’로 이름 정도 알고 있는 게 거의 전부였다.

깨달음의 세계란 말이나 형상 등 그 무엇으로도 완벽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팔만사천법문으로 어떻게든 저렇게든 설명해주셨고 불립문자를 표방하는 선사 스님들도 수많은 법문과 어록으로 마음법을 일러주었다. 또한 자칫 우상화되거나 신비화, 관념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보살상을 조각하고 각종 탱화와 만다라를 조성했다. 스승의 가르침과 원력을 잊지 말라는 의미이자 우리가 가야하고 이루어야 할 목적지를 똑똑히 보고 새기라는 뜻일 것이다. 특히 진리의 세계를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형상화한 만다라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재미있는 건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 만다라에 대해 알지 못했음에도 만다라 그리기를

심리치료 분야에 도입했다는 점이다. 그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에서 한 발 나아가 집단 무의식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강렬하고 자유로운 어떤 존재가 있다고 했다. 그가 심리학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불교의 영향이 컸다고 하지만 만다라 그리기는 우연히 시작됐다고 한다.

그는 둥근 원을 그리고 마음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형태와 색상을 그려넣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심리치료기법을 만들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순간 떠오르는 마음의 이미지를 그려 자신의 정신적 변화를 관찰하면서 찾은 방법인데 나중에 만다라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이를 만다라라고 명명했다. 마음 깊숙이 묻혀있던 잠재의식을 드러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길을 만다라에서 찾았으며, 이것이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했다. 비단 만다라뿐 아니라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 세계 수많은 원상의 문양은 인간 정신의 중심이자 개인의 참다운 본래 모습을 상징하고 통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융의 심리치료기법이 만다라의 의미와 너무 많이 닮아있어 놀랍다.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닦는 선정수행은 전통적으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여 마음을 챙기는 호흡법, 불보살님의 명호나 진언을 염송하는 염불법, 불보살상과 만다라를 관하는 관상법, 그리고 화두를 참구하는 참선법이 대표적이다. 관상법은 16관법 등으로 제시되지만 불보살상과 만다라를 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상수행은 불보살상이나 만다라를 바라본 다음, 그것을 안으로 깊이 관조한다. 상을 매개로 진리의

본질과 나의 참된 본성을 관하고 마침내 나와 부처가 하나 되는 즉신성불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원정대성사는 그렇게 합일되는 것이 자성 만다라이고 마음속에 내장되어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자성이라 말씀했다. 그것이 곧 불성일 것이다. 아울러 깨달음의 경지는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통파하는 좁은 길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만다라를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평면이 입체가 되고 피가 통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가슴 떨리는 말씀인 건 분명하지만 수행력이 일정한 나로서는 도저히 가능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아직은 그저 만다라 관상수행이 마음을 그처럼 바꿀 수 있게 해준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복과 지혜가 응집되어 있고 신구의 삼밀이 원만하게 구축되어 있는 만다라. 좁고 편협한 마음을 우주와 같이 드넓은 세계로 확장하고, 모나고 강박한 마음을 둥글고 원만한 마음으로 가다듬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만다라를 응시하고 고요히 마음 안에 담아보자. 만다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무대에서 평등원만하고 순정하고 수승한 찰나의 순간을 만나기를 꿈꾸어 본다.

\* 카를 구스타프 융의 만다라 그리기에 관하여 월간 『불교문화』 ‘만다라 그리기로 참다운 자기를 찾을 수 있다 - 심리학자 융과 만다라 명상 (문진건)’을 참조하였습니다.

BBS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왕생법문

#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 나의 친척들은 왜 내게 달라붙어 괴롭히고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일까? 건강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왜 병에 걸리는 걸까?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시험에 실패했을까?”

대부분 자신의 의지대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 모두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신의 노력과 달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의지가 좌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일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생들의 힘과 사물들의 힘이 함께 어울려 있기 때문입니다.

『잡아함경』을 보면 “서로 친하는 법이 있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라, 어떤 것이 서로 친하는 법인가. 이른바 살생하는 이는 살생하는 이와 친하고, 도둑질은 음행·거짓말·꾸밈말과 탐욕·성냄·삿된 사건은 각각 그 부류에 따라 서로 친하다. 비유하면 더러운 물건은 더러운 물건과 서로 화합해 가는 것처럼, 살생은 살생과 삿된 소견은 삿된 소견과 서로 친하느니라.”

이것은 개인의 의지와 업이 개개인에게 관여하고 있지만,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살아가는 공동된 업을 무시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만약 자신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타인들의 업력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달리 나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업중생’이라 합니다. 즉 그러한 업의 그물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며 무리 중생들의 말이나 행위가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옳은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업중생보’의 업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자신이 지은 업이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지 판단하여 그에 합당하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에서의 인과법은 운명론과 다릅니다. 과거의 업은 행함에 따라 현재의 과보를 받고 현재의 지은 업의 행위에 따라 미래의 과보를 받습니다. 또한 과거에 지은 자신의 업이라 할지라도 다른 중생의 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운명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법과 운명론은 차이가 있습니다. 벼를 살펴보면 벼의 종자에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벼일지라도 좋은 땅을 만나지 못하면 좋은 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조건이라는 연인데 벼라는 근본 원인과 대지와 온도, 영양분이라는 조건이 합쳐져 결과인 새로운 벼를 만들어 냅니다.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와 서로 섞이어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배를 저으면 각자가 지은 방향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자신만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그 가정의 공통의 과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열심히 돈을 벌며 저축을 하는데 자식이 마구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과입니다. 인과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여러 중생이 어울려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실을 계속 짜면 옷이 됩니다. 지금의 내가 행하는 업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한 줄의 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 결국에는 옷의 모양과 같은 선악의 과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저지르거나 선한 일을 할 경우에 당장에 과보를 받을 수도 있고 수십 년 후에 과보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아니면 죽은 후에 과보를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법원 주립』에 “모든 부처님의 신력은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업력으로 불가사의하다.”고 말하듯이 중생의 업력은 불가사의 해서 시간과 공간에 장애를 받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업을 쌓으면 그 업의 힘 때문에 반드시 좋고 즐거운 과보를 받습니다. 악한 업을 지으면 그 업의 힘 때문에 반드시 악하고 괴로운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지금 좋은 업을 지어야 합니다.

『잡아함경』을 보면 “인에는 나쁜 업의 인, 나쁜 마음의 인, 나쁜 소견의 인이 있다. 그런 중생은 몸이 험고 목숨이 끝나면 반드시 나쁜 세계 지옥에 떨어진다. 비유하면 둥근 구슬을 공중에 던지면 그것은 땅에 떨어져 굴러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처럼, 나쁜 업의 인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에 산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왜 나쁜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긴 원인이나 이전의 행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업을 믿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업을 믿는다는 것은 인과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바로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습니다. 기차를 보면 기관차의 힘으로 나머지 객차나 화물차는 따라가게 됩니다.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는 갈래의 기관차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인연 있는 중생은 자주 부처님을 찾고, 자주 법문을 들을 때 선한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대장엄경론』을 보면 “그대는 저 수레를 이끌어 가는 소를 보았는가? 수레가 가지 않을 때에는 소를 채찍질해야 하고 수레를 채찍질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몸은 수레와 같고 마음은 소와 같은 지라, 이러한 이치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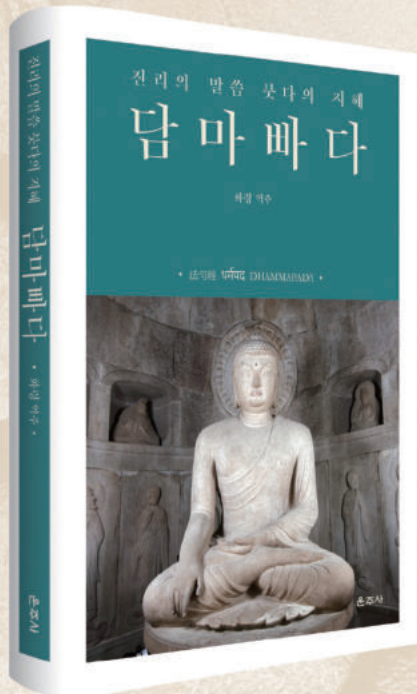
때문에 그대는 마음에 불을 지피야 하거든 왜 쓸데없이 몸을 못 견디게 하는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을 잘 단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삼악도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할지라도 비천한 사람이 되어 남의 미움을 받아서 사람들은 그와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입과 뜻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를 잘 살펴보고 나쁜 행위를 버리고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노력하면 두려움과 공포 없이 세상을 살아가 수 있을 것입니다.

큰 폭풍이 오면 파도는 크게 일고 조용한 바람이 불면 파도는 고요해지듯이 자신의 선악행위의 바람에 따라 고통의 업 파도는 크게 일기도 하고 잔잔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고통과 불행의 업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삼보와 인연을 맺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선한 행위를 가정과 사회에 실천해야 합니다.

##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뛰어넘어 전 인류에게 사랑 받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에 가깝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 담마빠다 法句經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의 팔리어 원본을 화령 정사가 쉽고도 간결한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 모든 불자와 일반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붓다의 말씀이 매 구절마다 심금을 울린다.

고해를 건너는 소중한 뗏목이며 사바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담마빠다』! 이천만 불자들의 필독서!

화령 역주/국판/양장/192쪽/값 14,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 총인으로 선출, 하월곡동 현 진각종 총본산 불사의 시작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29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종립 심인중고등학교는 진각종이 지향하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반이 되었다. 오랜 기간 교육자로 일했던 대성사의 경력은 학교 운영과 교육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사회와 학교 모두 큰 혼란에 휩싸였다. 군사정부는 학교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여 교원 인사도 좌지우지하려고 하였다. 대성사는 외적인 압박 속에서도 종교적 정체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며 여법하게 교무를 이끌어 갔다. 학생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해 10월 14일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1시간씩 심학 시간을 만들었다.

이 날만큼은 대성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수행과 마음을 통해 현실을 바로 대하는 법을 가르쳤다. 심학 시간은 회당 대종사와 대성사가 맡아 직접 밀교의 가르침을 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종립학교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종교적 원칙과 교리에 따른 마음공부라는 사실을 확실히 했다.

학생들에게는 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값진 것인가를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했는데, 대성사가 전하고자 했던 불교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이다.

“불교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 완성을 추구한다. 내세를 위해 천상세계에 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 부분 또한 방편을 들어 가르친 것이며, 현세에 있어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을 닦고 얻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대성사는 진각종 총인으로 종단을 이끌었다

불교가 염세주의적이거나 내세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비치는 면도 없지 않으나 대성사는 심학 시간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종교적 탐구와 실천이 필요한 부분을 강조했으니 종립학교의 정체성을 위한 특별한 교육 시간이 되었다.

“현실적 문제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도를 닦는 일은 종교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영원한 진리를 얻으려는 인격적인 노력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배우고 아는 것을 넘어 반드시 실천 수행이 따라야 한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현실은 결코 신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또한 원인 없이 비롯된 것도 아닌 것이다. 오직 인간 스스로 책임지고 불행한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인간성의 가치를 닦는 데 물러서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사회적인 혼란까지 겹쳐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을 청소년기에 대성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들려준 심학 시간은 영혼의 샘물이자 종립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밝혀 진정한 인간교육을 선

도한 표본이 된다.

진각종 시대를 열고 초창기에 수행법과 의례를 서둘러 정하면서 대성사의 마음 한 편에 명료하지 않은 의문이 늘 남아 있었다. 특히 진언수행의 중심이 된 관세음보살 육자진언의 경전적 근거를 찾기 위해 마음을 다하였는데, 당시 상황은 대장경 전체를 낱알이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 미뤄두고 후일을 기약할 뿐이었다. 종단 안팎의 일이 분주하였고 종단 총책임자인 선교라는 막중한 직을 맡고 있었기에 교리 연구에만 힘을 기울일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창종 이래 진각종은 육자진언 염송을 수행의 중심으로 삼았다. 육자진언이 관세음보살의 본심이며 이로써 심인의 상징으로 본 것이다.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삼고 수행의 본체는 관세음보살을 세우고 있었다. 때로는 관세음과 아미타불의 명호를 호명염불할 때도 있었으니 종교 체계가 완비되기 전이라 혼돈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밀교의 기반에서 수행과 신앙 전반을 완전히 체계화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교판(敎判)에 대한 미흡함은 늘 대성사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남았다. 방대한 불교의 가르침을 밀교의 입장에서 종합하고 체계

를 세우는 교상판석(敎相判釋)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 대성사의 견해였다.

“가정에는 모름지기 조상의 내력이 필요하고, 국민은 곧 국가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교상판석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성사의 입장에서 진각종은 신흥 종단으로 힘찬 걸음을 내디뎠지만, 밀교적 원리로 불교 전체를 회통하여 교리와 체계를 온전히 세우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보았다. 밀교 수행을 내세웠지만 정통 밀교로 가는 길은 멀다고 파악하였다. 이는 후일 새로운 길을 열고 진각종에서 나오게 되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생자필멸,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의 시간을 맞게 된다. 운명의 시간이 닥쳤으니 1963년 10월 16일 대구 침산동 심인당, 지금의 불승 심인당에서 회당 대종사가 열반에 들었다. 대종사는 그해 회갑을 맞았으나 세상과 인연을 남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드러난 지병으로 육신의 기력이 다하게 되었다.

열반에 들기까지 세 차례 뒷일을 당부하

였는데, 대성사는 종단 책임자로서 모두 참석하여 회당 대종사의 뜻을 듣고 후 일을 함께 논의했다. 밀교를 중흥하자는 두 성인의 기약은 조금의 틈도 없이 굳게 맺은 결의였기 때문이다. 대종사는 임종 전날 마지막 법문을 남겼다.

“옛날에는 의발이요 이제는 심인법이라.”

심인불교라는 새로운 불교를 시작한 지 17년, 세속의 인연 62년을 밀교를 세우는 일에 바치고 생을 마쳤다. 장의는 진각종 종단 장으로 치렀고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대성사가 맡아 밀교 중흥의 씨앗이 된 회당 대종사가 가는 길을 여법하게 밝혔다. 돌아보건대 사람의 인연 또한 법계가 정한 것이며, 대성사와 회당 대종사의 만남은 이 땅의 밀교를 열었으니 그 인연의 무게는 무겁고 컸다.

회당 대종사의 유지를 잇기 위해 1964년 3월 23일 종제 개편과 종헌 개정을 위한 논의가 열렸다. 종단 최고위직으로 총인(總印)이란 직책을 새로 만들었다. 선교에서 인정, 그에 이어서 총인 직이 생겨 진각종을 이끌어나가게 된 것이다. 행정기관으로 통리원과 의결기구로 종의회, 종단 전체의 감사를 맡은 사감원 등의 새로운 체계로 다시 태어났다. 그다음 날인 3월 24일 바뀐 직제와 절차에 따라 주요 임원이 선출됐다. 종단을 이끌 총인으로 대성사가 선출되었다.

이미 회당 대종사의 유지가 그러했고 종단 내 스승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터라 대성사의 총인 직 수락은 진각종의 미래에 대한 종단 전체의 기대와 염원의 결과였다. 진각종 초대 총인을 대성사가 맡은 것은 종단 전체의 뜻이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종단의 정식 명칭으로 ‘진각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

대성사가 총인 직을 맡으면서 이론 일 중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진각종 총본산이 있는 하월곡동 대지를 매입하여 불사를 시작한 일이다. 종조비와 사리탑을 비롯해서 회당 대종사의 위업을 추모하는 일도 흠여짐 없이 진행됐다. 아직도 하월곡동 총본산 한켠에 자리잡은 추모비의 문장은 대성사가 남긴 것이니 진각종에 남긴 자취는 지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것이다.

##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 소요, 분란 그리고 연이은 사고, 오직 계행으로 함께 일어서

## 총지종의 역사

제2부 밀법 홍포의 대원을 계승·발전(1980년~1994년)  
03. 위기, 쇠신의 기회로 삼다

### 비상중단운영위원회 출범

종단은 수많은 법문과 경전, 수행의계, 제도 등으로 확고부동한 지점을 마련해 놓은 바탕 아래 흔들림 없이 나아갔다. 교세는 꾸준히 확산되었고 스승과 교도들의 신심과 수행력은 깊어갔다. 그러나 대성사의 입멸 이후 한 치의 동요도 없이 발전을 거듭하던 종단에도 한 차례 위기가 불어 닥쳤다.

1988년 9월 지인사 교도 20여 명이 통리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종의회 회의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표면적으로는 사원 신축에 대한 이견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계행을 위반한 지인사 주교 징계 결정에 대한 항명이었다. 법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승직자와 여기에 부화뇌동한 일부 교도들이 벌인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종단은 같은 해 12월 1일 승단총회를 개최하여 ① 종단과 승단의 위상을 실추시킨 일부 승직자에게 참회를 요구할 것 ② 불미스러운 사태를 책임지고 현 종의회를 해산할 것 ③ 지인사 신축문제는 승단과 교도의 화합을 선결한 이후에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2회에 걸친 사감위원회에서 지인사 주교 및 교무의 진술과 심리를 진행하여 주교의 치탈도침과 승적 제적, 교무의 공권징지 1년 및 100일 근신불공의 징계를 의결했다. 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다수의 지인사 교도들은 동요하지 않고 불공을 이어갔다. 사태 해결을 위해 청암 정사를 지인사 주교로 파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교도들을 다독이며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얼마 못 가 종단에 항의를 표했던 교도들 대부분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고 종단의 입장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하면서 갈등은 마무리 되어갔다.

앞선 데 뒀던 격으로 1989년 1월 공무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불의의 사고로

지덕 정사가 사망하고 통리원장과 실보사 주교 부부가 중상을 입었다. 이에 환당 종령은 지인사 문제와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1989년 4월 18일 강공회에서 종령과 통리원 집행부의 일괄 사표의사를 표명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비상중단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래에 발생한 제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종단을 일신하기로 결의했다. 비상중단운영위원회는 수성 정사를 의장으로, 청암 정사, 하정 정사, 의강 정사, 원봉 정사, 범성 정사, 총지와 전수를 위원으로, 경관 정사를 고문으로 선출했다.

수차례 회의를 거친 비상중단운영위원회는 1989년 7월 27일 승단총회를 통해 특정대종사를 제4대 종령으로 재추대하기로 결의하고 통리원을 비롯하여 사감원, 종의회, 원의회, 법장원, 교육원을 총망라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종법의 보완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사원 운영과 인사, 징계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원칙과 화합으로 종단을 이끌 수 있도록 수습책을 제시했다.

### 환당 종령 재추대

전면적인 쇠신을 단행하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이번에는 동해중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1991년 4월 동해중학교 직원이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인의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있지도 않은 학교 비리를 교육부에 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했다. 곧바로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진정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지고 일부 서류상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1989년 8월 18일 제3·4대 종령, 제5·6대 통리원장 이취임식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지만 잘못된 소문은 음성적으로 퍼져나갔고 이를 등에 업은 일부 교도들은 또다시 동해중학교 사건을 빌미로 소요를 일으켰다. 일부 승직자가 새로운 종법 시행에 반발하여 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신정회 서울지회는 동해중학교의 인수절차와 적법성을 비롯하여 수련원, 종유재산, 승단의 인사문제에 대한 건의와 해명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마치 종단 집행부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불신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였다. 특정 종령은 곧바로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하고 화합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에 종정자문위원회 회의를 비롯하여 창종당시 참여했던 원로스승회와 확대간부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해결책 마련에 busin했다.

1991년 9월 12일 승단총회에서 신정회 간부 30여 명이 동석한 가운데 제기된 모든 문제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낱말이 보고하고 시시비비를 가렸다. 열띤 토론 끝에, 소요를 일으킨 이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정확히 묻되 승직자와 교도 모두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통리원 집행부와 원의회, 종정자문위원회의 인사 개편을 통해 공정한 종단 운영을 꾀하

고 종단을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 종정자문위원회, 확대간부회의, 승단총회 등 지속적인 끈질긴 회의를 통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1992년 4월 22일 승단총회에서 환당대종사를 제5대 종령으로 재추대하고 진용을 다시 정비했다.

### 화합과 공명정대한 시스템으로 위기 극복

종단 역사상 초유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비상중단운영위원회는 1989년 7월 27일 승단총회를 통해 공백 상태인 종단 기구의 전체 인사를 단행하고 곧바로 종헌 종법의 보완과 정비에 착수했다. 1990년부터 매년 전국 사원의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행정 및 회계 문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정비했다. 사원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상의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종단의 운영원칙과 세부사항을 지도했다.

또한 동해중학교 사태의 여파로 위기에 처하자 1991년 4월 종정자문위원회를 종정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참여폭을 대폭 확대했다. 비상중단운영위원회에서 개정 보완된 종헌과 각종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결의하고,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거나 승단의 화합과 중풍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

각도의 방법을 강구했다. 재단, 종의회, 사감원, 원의원, 지역교구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 집행부와 신정회 대표가 참석하는 연석회의, 그리고 승단총회 등을 개최하여 일선 승직자와 신정회 간부와의 폭넓은 의견교환과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원만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1992년 4월 22일 승단총회에서 추대된 환당 종령을 중심으로 종단은 제반 법령을 보완하고 신규 법규를 마련했다. 종법과 각종 법규의 세부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정하는 가운데 1992년 9월 15일 종의회 결의로 종헌종법을 일부 개정하고 종립학교 관리법과 인사위원회법을 제정하여 학교 운영과 인사관리의 법적·제도적 원칙을 명문화했다. 종립학교의 건전한 발전과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임원의 자격과 선출 절차를 정하고 통리원에 종립학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공정한 인사집행과 원활한 인사행정을 위해 종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11인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스승의 신규 임명, 전보, 퇴임 및 스승과 종무원의 특별승진과 채용 등 인사 관련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 소집과 집행 절차를 명문화하여 공정한 인사에 만전을 기했다.

## 총지사 교도 광고

혈액투석 · 줄기세포 · 암면역치료 · 자가진피주름재생술



연세숲내과  
Yonsei Forest Clinic

원장 김 채 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10길 17 제이메디컬빌딩 5층  
Tel. 02-496-0779 Fax. 02-496-0778







## 선밀쌍수 『밀교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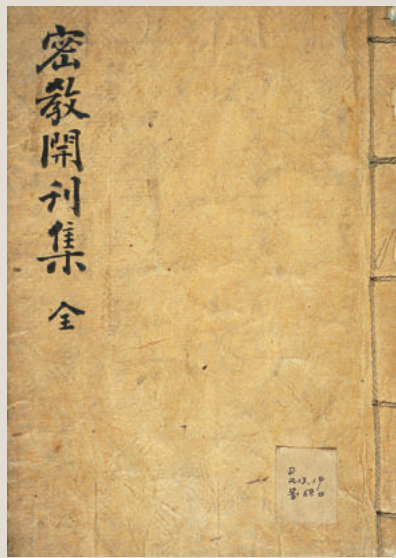
선밀쌍수는 갑진년 필자가 마음먹은 지정주제라 생각한다. 자료의 희귀성 때문에 형식은 자유롭게 취할 수밖에 없다.

사찰문화 가운데 밀교와 가까운 것은 범패다. 범패를 평생 해온 스님도 오방색을 부처님색이라 말하지만 오방색의 원리는 알지 못한다. 조선시대부터 출세간의 선 수행과 사찰문화의 소재를 제공하는 범패는 한 공간에 마주해 왔다. 조선시대 선사들은 수행에 전념하면서 중생과 인간사회를 위해 범패의 소재에 익숙해져야 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문집에도 이러한 흔적들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조선시대 발간된 문헌을 보면 밀교와 관련된 많은 저술이 출간되었다. 밀교 종단이 절멸한 지경에 있지만 선사들에 의해 선과 밀교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들이 눈물겹게 이루어진 것이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 아카이브사업단은 조선시대 선사들의 문집을 다수 번역했다. 베일에 가렸던 조선시대 선사들의 정신과 삶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선과 더불어 조선시대 밀교 문헌마저 드러내야 선의 정신과 밀교의 문화가 온전하게 조화를 이룬 조선 불교의 면목을 볼 수 있다.

『밀교집』은 조선 후기 승려 몽은이 1784년에 간행한 밀교서책이다. 다른 이름으로 『밀교개간집』 또는 『밀교집』이라고도 한다. 몽은은 그의 스승인 위기의 범서를 기초로 설악·연파·해봉 등과 함께 찬술하였다. 다른 곳에서는 이 책을 밀교의례서라고 말하는데 의례는 밀교의 일부일 뿐이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밀교를 의례와 동일시



밀교집

1784년(정조 8) 경상북도 성주 불영산 수도암에서 출간된 사실을 보면 지난 무안 총지사의 기고와 관련해 영호남 가릴 것 없이 조선시대 전도에 밀교의 전승이 산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밀교집』에도 진언에 대해 범어와 한글음의 병기를 시도해 한글 창제의 역사성을 덩으로 부가하고 있다. 이외 의식의 개설방법과 절차, 그리고 등을 자세히 밝혀주고 있다. 행문에는 택일과 장소, 관문에는 관심법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선밀쌍수와 관련해 주목할 내용이다.

특히 대일여래의 오지와 오불을 밀교의 관법 중에 등장시키고, 여기에 만다라단, 수인, 작단법 외 양부만다라가 등장하여 이 수법에 대한 복원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환우(喚愚)의 <서>를 보면 『밀교집』이 단순한 의례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현교와 밀교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선밀쌍수의 원리와 실천 양면에 투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의 일부를 인용하면, “여래의 일대 가르침은 현교와 밀교 이문을 넘지 않으니 여기서 밀교는 양 문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여 현교와 밀교를 명확히 구분한다.

또한 다라니에 대해, “이것은 제불의 어머니로 보살의 생명이며 중생의 근원이다. 범부가 성인이 되는 훌륭한 약이며 생사를 바꾸어 열반에 들어가는 요문이다. 대개 불자의 요체로서 대승에 드는 자는 이것을 무문이라 부른다”라고 하여 다라니를 출세간의 유가로 해석하고 있다.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  
정성준 연구원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른 예로 불교수행을 명상이라 부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다. 불조에 의해 전승된 불교수행을 명상이란 이름으로 타종교와 공유하는 것은 반갑지 않다. 상업의 시류를 좇아 대중의 편한 시야에 잣대를 맞추면 그것이 곧 말법을 재촉하는 일이다.

『밀교집』은 환우와 산포의 서가 있다. 책을 개간할 때 도움이 된 속인과 승려의 명단을 보면 사찰의 불사와 범패를 두고 세간의 관리와 백성, 출세간의 승려들이 회사해 출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사의 소재를 제공하는 밀교는 도량과 의례, 범패를 제공하고 삼보를 시련에 모셔올 때는 청옥과 공양을 올리고, 참회와 귀의, 발복을 기대하면서 한마당 도량에서 상하가 어울려 흐드러지게 마음을 풀었다. 삼보를 청해 불보살과 중생이 소통하는데 어찌 소홀할 것인가?

『밀교집』은 밀교 전적으로는 종합적 성격을 지닌 점에서 유일하다. 최초

남해 정사의



## 조삼모사가 주는 교훈

학창시절 <장자(莊子)>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의 ‘물고기와 도(道)’라는 부분이 좋아 한동안 그 구절을 외우고 다녔던 적이 있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고 사람은 도(道)에서 난다. 물에서 난 물고기는 연못의 깊이는 그늘로 찾아 들어가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채워진다. 도에서 난 사람은 행위 없음의 깊이는 그늘로 침잠해 다툼과 근심을 잊는다면 그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 그 삶은 평화롭다.”

행위 없음의 철학, 물속 깊이 가라앉은 물고기처럼 나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행위 없이 고요하게 지내고 싶었다. 내가 인위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자연계는 두루 돌보아진다. 행위가 아닌 존재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장자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학창시절 장자가 좋았다. 장자처럼 한량으로 살고 싶었다. 놀고먹는 한량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에 동화되어 연약한 존재로 살고 싶었다. 살아 숨 쉬는 것은 연약하다. 하지만 더욱 연약해질수록 내면의 깊이는 깊어진다. 바위는 아주 단단하고 강해 보이는 반면, 물은 너무 연약해 보인다. 하지만 물방울이 바위에 계속 떨어지면 결국 바위는 닳아서 모래가 된다. 부드러움은 연약해 보이지만 부드러움은 단단함을 녹여 버린다.

장자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의 하나가 ‘조삼모사(朝三暮四)’이다.

“마음을 괴롭혀서 하나로 만들려고만 했지, 본디 동일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일러 ‘조삼(朝三)’이라고 한다. 조삼이란 무엇인가? 저공이 도토리를 주려고 하면서 아침에는 세 개, 저녁에는 네 개를 주겠다고 하였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성을 내었다.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고 하였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는 말이 그것이다. 이름과 실상에 다름이 없는데도 기쁨과 성명의 작용은 달랐으니, 이는 또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시비를 조화시켜 자연에 맡겨 가지런히 만든다. 이를 옳고 그름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다.”

조삼모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잔꾀로 남을 속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열자(列子)는 “사물이 지혜로써 서로를 속이는 것이 다 이와 같다. 성인은 지혜

로써 어리석은 군중들을 속이는데, 역시 저공이 지혜로 원숭이들을 속이는 것과 같다. 이름과 실상을 훼손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도 하고 노하게도 한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조삼모사의 내용을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저공은 왜 도토리 세 개를 주려했고, 원숭이는 왜 도토리 네 개를 받고 싶어했을까? 저공의 입장에서는 줄 수 있는 도토리가 한정되어 있어 하나라도 덜 주어 미래를 위해 하나라도 더 저장하고 싶었을 것이고, 원숭이의 입장에서 한정된 도토리의 양으로 볼 때 당장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침에 하나라도 더 먹어 두는 것이 생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저공과 원숭이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자비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저공과 원숭이는 각자의 위치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며, 저공과 원숭이는 현재의 처한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모를 일이다.

대학 때의 일이다. 하루는 천하게 지내던 후배가 나에게 “선배는 꿈이 뭐예요?”라고 물었다. 그래서 “내 꿈은 한량이다”라고 말했더니 후배는 자신을 싫어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알고 인상이 안 좋아져서 말없이 가버렸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나 내 꿈이 왜 한량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해를 풀 적이 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있지 않다. 실상을 잘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불교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   |   |   |   |   |   |   |   |   |   |
|---|---|---|---|---|---|---|---|---|---|
| 옴 | 흠 | 야 | 호 | 사 |   | 권 |   | 사 | 과 |
| 므 |   |   |   | 랑 |   | 한 | 복 | 판 |   |
| 파 | 스 | 타 |   | 방 | 생 |   |   | 승 | 마 |
| 탈 |   | 산 | 소 |   | 로 |   |   |   | 시 |
|   |   | 지 |   |   | 병 | 따 | 개 |   | 멜 |
| 전 | 광 | 석 | 화 |   | 사 |   | 교 | 차 | 로 |
| 기 |   |   | 분 | 수 |   | 보 |   | 력 |   |
| 자 | 비 | 심 |   |   | 아 | 리 | 수 |   | 이 |
| 동 |   | 술 | 래 |   |   | 달 |   |   | 뿐 |
| 차 | 박 |   |   |   |   | 마 | 수 | 걸 | 이 |

# 한국밀교학회 인도네시아 불적답사

6월 30일까지 선착순 20명 마감

한국밀교학회는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사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보루부드루 불교사원과 브란바난 힌두사원, 문 듯 불교사원과 세우 사원, 로미오와 줄리엣 사원, 플라오산 사원 등을 답사합니다. 보루부드루 사원은 장대한 불탑으로 세계 3대 불교사원 가운데 한 곳이며 브란바난 힌두사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술탄왕궁 물의 궁전 관람, 이조 사원 석양 감상, 그레자 야암(달 교회) 전망대 관람, 머라피 화산 투어, 라마야나 전통공연 관람 등이 있습니다. 뜻있는 스승님과 금강회 임원 및 신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24년 8월 16일(금)부터 8월 21일(수)까지(4박 6일)

경비 | 240만원 (농협 024-17-001883 한국밀교학회)

신청 | 한국밀교학회 총무이사 명운(김치운) 전화: 010-5322-2746



교도수행체험당 ⑨

새해불공

벽룡사 김종선 보살

저에게는 해가 바뀐다는 것은 곧 새해불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해이니가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의 목표를 다잡으며 하나의 동기로 삼는 것입니다. 새해불공을 할 때면 전년도에 허물은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이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계획과 목적을 뚜렷하게 세우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새해불공을 시작하면 늘 스승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올해는 어떤 법을 주실지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스승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보살님 올해는 집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장 집을 살 계획도 없거니와 그에 마땅한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어떤 집을 살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백지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쩐지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조금은 막연한 꿈은 곧 ‘아파트 청약’이라는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때 아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라서 오로지 저의 일은 불공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새해불공이 끝나고 얼마 지나서 꿈을 꾸었습니다. 열반하신 정사님을 절 앞에서 만난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절 앞에 관복을 입은 법관들과 함께 여럿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다가가기를 조금 망설이자 정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갔더니 법요식 책에다가 수건을 하나씩 묶어놓은 그것을 저에게 한 집을 주시면서 “보살님 이거 들고 가서 다른 보살님들과 나눠서 가지세요.”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꿈인데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물려서

그 책을 달라고 하는 와중에 제가 특정한 보살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으신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 것을 내가 따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것과 보살님 것 두 개를 챙기고 나머지는 다른 보살님들에게 나눠준 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너무도 감사하게 그해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제집 마련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법을 내려주신 스승님께 꿈속에 나타나 주신 정사님께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 남편은 원래 직업군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한 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어머니 건물에서 일을 하였는데 마땅히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속상해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당시 아이를 낳은 후 전업주부로 생활을 할 때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범의 사업이 시원치 않아 너무도 걱정이다. 일꾼들과 저렇게 놓고 있는 것을 보니 너무도 속상하다. 그래서 나는 네가 가장 걱정이 된다.” 남편이 자식 된 도리로 불효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도 죄송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에게 무어라 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불공을 하며 남몰래 다짐하였습니다. 7시간을 앉아서 정진하며 다른 서원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것도 감히 바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시어머니께서 걱정만 안하게 해달라고 발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시어머니께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불공을 드리다 설움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새해불공 내내 7시간 동안 오직 그것만을 바라고 서원하였습니다.

3월이 되자 시동생이 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 어디 취직 안 해? 전공 살려야지, 생판 처음 하는 일을 하면

힘들잖아.” 남편은 그 말에 무언가 느낀 것이 있었는지 전공을 살려 엔지니어 계통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조금 안심하는 듯하였습니다. 제 간절함을 부처님께서 알아주신 것 같아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이상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없게 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언니 집에 놀라가서 대청마루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고 있는데 집 밖을 지나가던 어떤 나이 지긋한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대뜸 “아가씨 남자가 있네. 지금 그 남자랑 결혼하면 손이 귀하게 될 거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린 성격을 가진 탓에 그 말에 눈물이 핑 도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남자친구(현재의 남편)와의 결혼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쉽게 헤어지지도 못 하겠네.”라는 겁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도 않았지만 자손이 귀하다는 말을 그냥 넘기기에 도어딘가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제 언니가 “괜찮아, 불공하면 돼.”라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조금은 고민을 하던 참에 할머니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니의 위로도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스물 다섯 살에 첫 새해불공을 했습니다. 7시간 정진도 그때 처음 하였습니다. ‘부처님. 제 인연에 맞는 자식을 원합니다.’ 처음엔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참고 견디면 분명 그에 응하는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꿈에 그리던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어딜 가면 항상 불교가 모태신앙이라며 너스레를 떨곤 합니다. 건강하게 자라준 제 아이와 인연에 꼭 맞는 아이 둘을 보내주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제갈공명의 부인 황 씨 이야기

삼국지에 등장하는 제갈공명의 부인 황 씨에 대한 이야기이다. 얼굴 모습이 전부가 아니지만 제갈공명에게는 못생긴 부인이 있었다. 제갈공명이 신부감을 찾고 있을 때, 황승언은 “나에게 추하고 못생긴 딸이 있다. 모습은 노란 머리에 피부색은 검고, 드러낼 것이라곤 오로지 재능밖에 없긴 하지만 당신과 배필이 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제갈공명이 승낙을 하자, 황승언은 딸을 마차에 태워 데려다 주었다.

제갈공명이 마침내 결혼을 하고 첫날밤 신방에 들어갔는데, 황 씨 부인이 너무 못생겨서 차마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방을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신부 황 씨가 황급히 제갈공명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만 옷깃이 찢어져 버렸다. 황 씨 부인은 제갈공명의 옷을 받아 기워 주겠다고 했고, 그런데 바느질을 한답시고 못바늘로 등성등성 꿰매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제갈공명은 이런 부인의 모습을 보고 나니 만정이 떨어지고 더더욱 미운 마음이 들어 바느질한 옷을 받아 들자마자 신방을 나와 버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집 마당 안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 마당에 나온 장인 때문에 다시 신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날이 밝자 꿰맨 옷을 다시 보았더니 등성등성 꿰매 줄 알았던 옷이 틀로 박아 놓은 것처럼 곱고 정갈스러웠다.

제갈공명의 부인은 이렇듯 바느질에만 솜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이 없는 매사에 지혜롭고 현명한 인물이었다. 제갈공명은 이런 부인의 도움으로 더더욱 지성과 덕성이 뛰어날 수 있었다. 제갈공명의 아내 황 씨는 이렇게 재능이 뛰어나고 똘똘이가 훌륭해서 남편이 승상의 자리에 오르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갈공명이 자신의 제2의 고향이자 삼고 초려(三顧草廬)의 현장인 호북성 양양 읍

중에 살 때, 손님의 방문이 있어 아내 황 씨에게 국수 준비를 부탁했더니 바로 국수가 나왔다. 후후(제갈공명)가 그 속도를 기이하게 여겨, 나중에 몰래 식당을 엿보았더니, 몇 개의 나무 인형들이 나는 듯이 보리를 자르고 맷돌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아내에게 이 재주들을 전수 받아 제 조 방법을 이용하여 식량 운송용인 목우유마(木牛流馬)를 만들기도 했다.

제갈공명은 늘 깃털 부채를 들고 다녔는데 이는 아내 황 씨의 부탁이었다. 그녀가 부채를 선물한 데는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자기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당부가 담겨 있었다. 황 씨가 제갈공명에게 늘 이르기를, “친정 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포부가 크고 기개가 드높은 인물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유비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당신의 표정이 환했지요. 하지만, 조조에 대해 말할 때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군요. 손권을 언급할 땐 고뇌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였구요. 큰일을 도모하려면 안색에 곧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침착해야 하니 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도록 하세요.” 제갈공명은 집을 떠나있는 동안에도 늘 학우선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게 되었다.

황 씨가 말한 ‘얼굴을 가리라.’라는 이 말은 ‘침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녀는 마음이 고요해야 태연함과 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일상은 어떨까? ‘육’하는 성질 때문에 순간을 참지 못해서 갈등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이해심과 배려심 부족으로 인해 다툼을 가져오게 하기도 하며, 성급하게 처리하려다가 이내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았던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고사를 지혜의 샘물로 삼아, 각자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월 21일 ~ 2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움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     |              |        |        |             |              |        |              |            |        |        |        |            |             |        |        |
|------|-----|--------------|--------|--------|-------------|--------------|--------|--------------|------------|--------|--------|--------|------------|-------------|--------|--------|
| 관성사  | 김병석 | 1/21         | 20,000 | 단향사    | 김라경         | 2/11         | 10,000 | 석관실버<br>복지센터 | 나석원        | 1/25   | 50,000 | 정각사    | 진여         | 1/25        | 10,000 |        |
|      | 우인  | 1/22         | 10,000 |        | 정서호         | 2/11         | 10,000 |              | 오선혜        | 2/1    | 10,000 |        | 김점남        | 1/30        | 20,000 |        |
|      | 보명심 | 2/15         | 10,000 | 덕화사    | 법상인         | 2/15         | 20,000 |              | 성화사        | 신정희일동  | 2/7    |        | 100,000    | 안한수         | 2/4    | 10,000 |
| 기로스승 | 공덕성 | 1/22         | 20,000 | 동해사    | 법선          | 1/22         | 10,000 | 수인사          | 김예선        | 2/14   | 20,000 | 제석사    | 이진승        | 1/31        | 10,000 |        |
|      | 수종원 | 1/22         | 10,000 |        | 김진화         | 2/2          | 10,000 |              | 법상         | 2/15   | 20,000 |        | 초록<br>어린이집 | 유지영         | 2/2    | 80,000 |
|      | 밀공정 | 1/22         | 10,000 |        | 만보사         | 송인근          | 2/20   | 10,000       | 시범사        | 해광     | 1/21   | 10,000 | 총지사        | 록경          | 1/22   | 20,000 |
|      | 선도원 | 1/22         | 10,000 | 강명순    |             | 2/1          | 10,000 | 이순영          |            | 1/22   | 20,000 | 유은혁    |            | 2/4         | 10,000 |        |
|      | 법지원 | 1/22         | 10,000 | 이종구    |             | 2/13         | 7,000  | 해광           |            | 2/13   | 10,000 | 신현태    |            | 2/13        | 10,000 |        |
|      | 일성혜 | 1/22         | 10,000 | 밀인사    | 김정희         | 2/18         | 10,000 | 실보사          | 이순영        | 2/13   | 20,000 | 백귀임    |            | 2/13        | 10,000 |        |
|      | 사홍화 | 1/22         | 10,000 |        | 정정희         | 2/1          | 5,000  |              | 이순욱        | 1/26   | 10,000 | 최영아    |            | 2/13        | 10,000 |        |
|      | 안주화 | 1/22         | 10,000 | 밀행사    | 덕광          | 2/13         | 20,000 |              | 실지사        | 박성호    | 1/26   | 10,000 |            | 록경          | 2/18   | 20,000 |
|      | 진일심 | 1/22         | 10,000 |        | 행원심         | 2/5          | 10,000 | 유승우          |            | 2/4    | 10,000 | 김정환    |            | 2/18        | 10,000 |        |
|      | 시각화 | 1/22         | 10,000 | 법천사    | 이은별         | 2/5          | 10,000 | 이도현          |            | 2/4    | 10,000 | 무명씨    |            | 2/20        | 50,000 |        |
|      | 최상관 | 1/22         | 10,000 |        | 반아심         | 1/31         | 10,000 | 이서현          |            | 2/4    | 10,000 | 통리원    | 김평석        | 1/26        | 10,000 |        |
|      | 연등원 | 1/22         | 10,000 | 법황사    | 인선          | 1/22         | 10,000 | 이루나          | 2/4        | 10,000 | 강동화    |        | 1/30       | 10,000      |        |        |
|      | 자선화 | 1/22         | 10,000 |        | 정계월         | 1/22         | 10,000 | 진금선          | 2/6        | 80,000 | 화음사    | 박대영    | 2/1        | 10,000      |        |        |
|      | 승효제 | 1/22         | 10,000 | 박미경    | 1/25        | 10,000       | 양지어린이집 | 정동숙          | 1/29       | 80,000 |        | 박대성    | 2/1        | 10,000      |        |        |
|      | 주신제 | 1/22         | 10,000 | 벽룡사    | 승원          | 1/22         | 10,000 | 양지<br>제1복지관  | 박송희        | 2/2    |        | 20,000 | 무명씨        | 2/2         | 10,000 |        |
|      | 총지화 | 1/22         | 10,000 |        | 묘원화         | 1/22         | 10,000 | 운천사          | 이성미        | 2/16   |        | 50,000 | 박옥자        | 2/4         | 10,000 |        |
|      | 단향사 | 지홍           | 2/10   | 10,000 | 벗고을<br>어린이집 | 이민선          | 2/1    | 80,000       | 일원<br>어린이집 | 하재희    | 1/25   | 80,000 | 힐스<br>어린이집 | 송영근         | 2/5    | 30,000 |
|      |     | 이수형          | 2/10   | 10,000 |             |              |        |              |            | 연명구    | 1/29   | 10,000 |            | *포항 대련리 후원금 |        |        |
|      |     | 김광섭          | 2/11   | 10,000 | 사원명<br>무기명  | 하명순          | 1/25   | 10,000       | 자석사        | 도우     | 2/5    | 10,000 | 관성사        |             | 우인     | 2/19   |
| 이은정  |     | 2/11         | 10,000 | 박필남    |             | 2/14         | 10,000 | 지현           |            | 2/5    | 10,000 |        |            |             |        |        |
|      |     | 석관실버<br>복지센터 | 정윤영    | 1/25   | 10,000      | 잠원햇살<br>어린이집 | 김선희    | 1/26         | 80,000     |        |        |        |            |             |        |        |
|      |     |              | 박현정    | 1/25   | 20,000      |              |        |              |            |        |        |        |            |             |        |        |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어는 삶<20>

## 불자와 현실 정치, 그리고 선거

4년마다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4월이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후보 공천과 선거 준비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 사회에서 선거는 축제이다. 우리나라 국가 질서의 근본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바르게 정치하는지 잘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선거 밖에 없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니 정치에 신물이 나고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게 생긴다. 여와 야가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들추어 비판하고 공격하니 국민들의 인식에는 불쌍사나운 모습이 자주 보일 수밖에 없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런 사회 정치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부처님은 이 세상 만물이 연기(緣起)로 존재한다고 하셨다. 연기란 나와 이 세상의 일체 존재가 서로서로 의지하여 존재할 뿐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세상 만물, 만사를 연기로 보게 되면 정경이 서고 반야 지혜가 나온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지지고 볶고 치열하게 갈등하는 사회 정치 현실도 그대로 연기로 존재함이다. 여도 연기고 야도 연기로 존재한다. 나도 연기로 존재하고 너도 연기로 존재한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도 모두 연기로 존재하니 본질은 다르지 않다. 이것



을 대응에서는 불이(不二) 중도(中道)라 한다. 대승적으로 보면 여당도 야당도 중도 연기로 존재하니 둘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는가? 자기 본성을 모르니 ‘내가 있다’ ‘내가 옳다’고 착각하고 집착하니 나와 남을 다르게 보고 차별하고 시비하여 이기려고 한다. 나와 남을 가르고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승부심으로 권력을 다투니 대립과 갈등이 멈출 날이 없는 것이다.

특히 세속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연기법을 모르니 자기 본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있다’는 착각과 차별에 빠져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한다. 나와 내편, 내당을 위한 정치를 하니 상대를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화와 어리석음에 빠져 진흙탕에 뒹구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불자라면 이렇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지지고 볶고 대립 갈등하는 정치가 그대로 연기법의 이치이니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잘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 연기 무아로 존재한다는 진리를 모르니 이기적인 욕망으로 정치하고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미워하거나 화로 받아들이다면 그 역시 차별

을 떨어져 시비심을 내는 것이다. 현실 정치도 연기법으로 보게 되면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어느 한 편에 집착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바로 보는 지혜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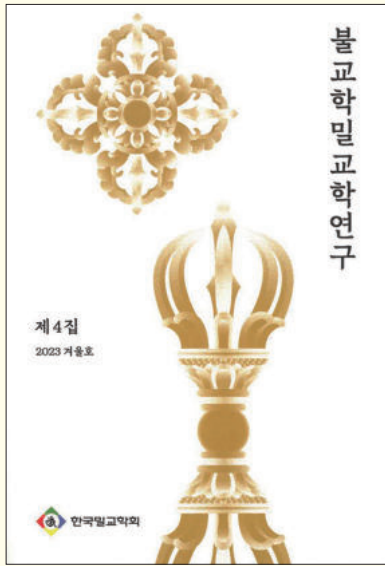
이기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보일 것이고 반대로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도 보일 것이다. 입으로는 온갖 달콤하고 현란한 말과 정책을 이야기할지라도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말과 함께 행동을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인지, 진정 국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인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어떤 후보가 이기심을 버리고 진정 지역 사회와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심을 지닌 사람인지 두루 살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투표는 국민이 주인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현실 정치에서 부정적인 모습이 보일지라도 서로 잘하려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몸부림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불자라면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이끄는 사람을 뽑는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서 주인 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 한국밀교학회 <불교학밀교학연구> 제4집



하여 총 13편의 논문을 실었다.

밀교학 분야는 △『육경합부(六經合部)』의 육경(六經)과 진언의 관계성 연구(이선아) △『현밀원통성불심요집(顯密圓通成佛心要集)』에 나타난 진언다라니 연구(강대현) △진언수행의 역사와 전개에 대한 고찰(강향숙) △밀교 일체지지의 성립과정과 내용 연구(김치은) △티베트 불교에서의 의례를 통한 치병기도: <장애를 정화하는 연기공양>을 중심으로(박영빈) △

한 국 정통밀교의 양대 종단인 총지종과 진각종이 뜻을 모아 창립한 한국밀교학회(학회장 효명 정사)가 학술지 <불교학밀교학연구> 제4집을 발간했다. 이번호에서는 밀교학과 불교학을 갈래로

산파데바 『입보리행론』의 보리심 이론 고찰(오현희)의 총 6편이 수록됐다. 불교학 분야는 △준식의 천태참법과 예참의 고찰(임상목) △명말불교계의 새로운 불학 모색-감산덕정의 회통관을 중심으로(현지혜) △삼진구덕괘(三陳九德卦)와 우환의식에 관한 불교적 이해 - <주역선해> 해석을 중심으로(이시우) △10.27 법난의 불교사적 배경과 향후의 과제(장성우) △일본 남산사 소장 초조본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에 대한 교감학적 분석-재조본과의 대조를 중심으로(석혜영) △가죽공동체의 측면에서 본 심리치료 기제로서 공동의 카르마(共業) 개념의 적용(이충현) △경기도 이천 영월암과 대웅전의 추이 및 건축적 특징(손신영) 총 7편이다.

학회 자문인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학술지 발간 축하사에서 “<불교학밀교학연구> 제4집은 밀교의 수행이라는 대주제로 발표와 논의가 되었던 논문들이 여러 갈래로 게재되면서 학문영역에서 교화와 실천방향으로 나아가는 유의미한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4집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밀교와 밀교학 발전의 대장정의 길에서 다함께 무명을 밝히고 지혜가 일어나기를 서원한다.”고 격려했다.

## ‘국운융창·국민행복 기원법회’ 봉행 총무부장 록경 정사 종단 대표로 동참



국민의힘 불교분과위원회(위원장: 이창연)가 지난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국운융창 국민행복 기원 대법회’를 봉행하고 재출범을 알렸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을 대표해 총무부장 록경 정사가 참석했으며,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천태종 종의회 부의장 경천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등과 주원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이 동참했다. 이창연 위원장은 “불교의 가치를 정치에 접목해 한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한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화음사 교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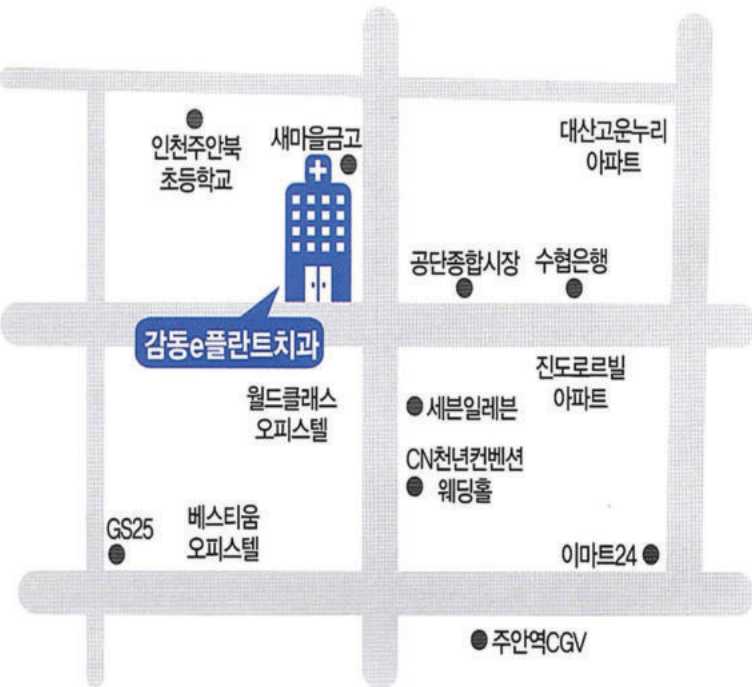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 4,5층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들니 |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 석관실버복지센터, ‘지니어스봉사단’ 제3기 발대식

### 경륜·재능 나눔 앞장서는 어르신 전문 자원봉사단 결성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가 지난달 6일 지역사회 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석관지니어스봉사단’ 3기 발대식을 가졌다.

석관지니어스봉사단은 어르신들이 재능나눔 활동을 실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노년층의 사회참여 문화를 활성화하여 신 노인 문화 창출을 도모하는 어르신 전문

자원봉사단이다.

이번 행사는 봉사단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정기적 활동을 독려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노인상 제시 및 어르신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기동민 국회의원, 김태수, 강동길 시의원, 이호건, 정기혁 구의원

등에 대한 기대·격려의 인사와 함께 활동의 시작을 알렸고, 봉사단원에게는 각각 단복과 배지,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있고 가치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재능과 전문성을 살려 나눔이 확산되는 문화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성북구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석관지니어스봉사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유치원 원아들과의

덧발 활동·지역주민들과의 나눔 자회회를 통한 ‘세대공감지니어스’, 두뇌건강증진센터 치매예방 학습지도·보드게임 활동을 주도하는 ‘두뇌건강지니어스’, 센터 프로그램 환경 조성 및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이끌어갈 ‘스마일 지니어스’ 등 분야에서 31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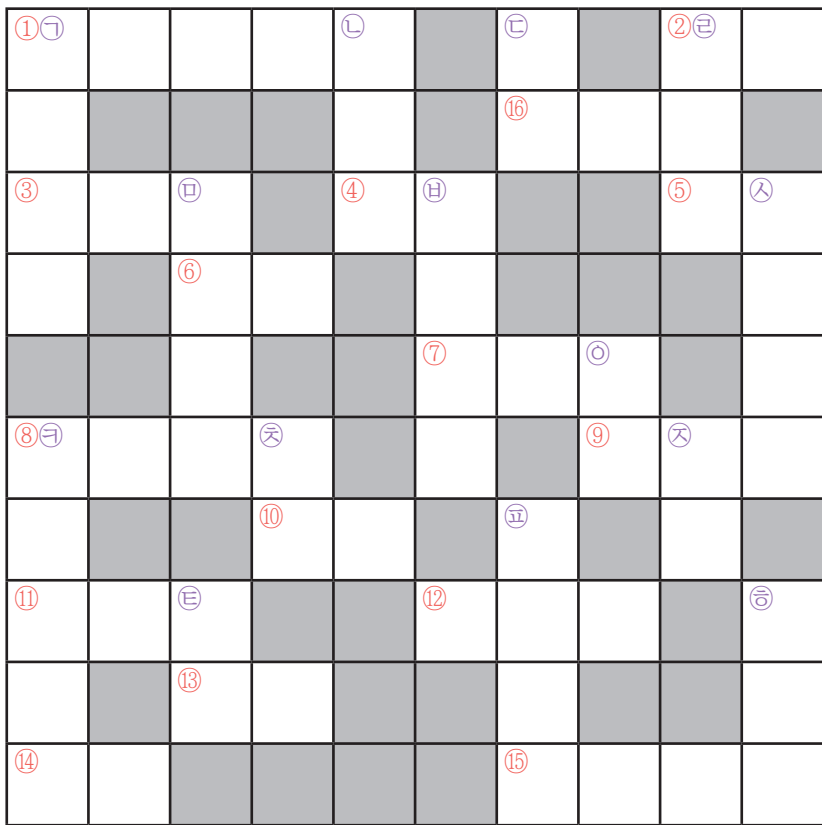
행사에 참석한 봉사단원 어르신은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발대식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며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어 2부에서는 축하공연 및 선물나눔을 통해 어르신들의 봉사활동 및 평생 학습에 대한 열정을 응원하였다.

#### 축하합니다

##### 총지사

조일화 교도 아들 조형원 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김은미 교도 딸 손효정 양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입사

## 가로세로 총/지/문/답



#### 가로 열쇠

- 불교총지종에서 ‘진호국가불공’시 국민대안을 기원하며 외우는 진언
-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
- 밀가루를 달걀에 반죽하여 만든 이탈리아식 국수
- 사람에게 잡힌 물고기나 새, 짐승 따위를 산이나 물에 놓아서 살려 주는 일
- 말을 타고 하는 운동 경기
- 공기의 중요한 성분인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
- 병 따위의 닫힌 뚜껑을 따는 기구
- 번개가 치거나 부싷돌이 부딪칠 때의 번쩍이는 빛이라는 뜻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동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도로들이 교차하는 지점
- 자기의 신분이나 처지에 알맞은 한도
-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 고구려때 한강을 부르던 말로, 서울시 수돗물 이름
- 놀이에서 숨은 아이들을 찾아내는 아이
- 여행할 때에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름
- 하루의 장사에서 또는 장사를 시작하여 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
- 복판의 한가운데

#### 세로 열쇠

-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남자’라는 뜻
- 한옥에서,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쳐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방
- 사람이나 기관이 보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의 범위
- 절의 사무나 경리 등을 맡아서 처리하는 스님
-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나의 욕을 다듬는 데에 소용이 된다는 뜻
-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큰 고통
- 젤라틴, 계란 흰자, 설탕, 향료, 색소 등을 섞어 거품이 일게 한 다음 굳힌 과자
- 학교를 열다
- 격파, 차 끌기, 씻물 머금기 등의 힘과 기함으로 하는 묘기
- 화초를 심고 가꾸는 그릇
- 직류 전동기를 원동기로 하고 축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짓궂게 남을 괴롭히거나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는 못된 마음
- 중국 선종의 개조, 불가의 그림 ‘달마도’
- 생김새나 행동, 마음 따위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



##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

### 일원어린이집 교직원 합동연수 성료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 산하 일원어린이집(원장: 하재희)이 2024학년도 신입·경력 교직원 합동연수를 실시했다. ‘나의 공식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2월 3, 17, 24일 3회에 걸쳐 수업이 없는 토요일을 이용해 오전부터 오후까지 교육에 참여했다. △아동학대 및 아동 성폭력 예방 △짝궁과 라포 형성하기 △교사가 행복해야 아동이 행복하다 등의 강좌를 통한 교사 자질 향상과 △힐링 꽃꽂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교사 간 유대관계 강화와 협력,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하 원장은 “앞으로도 일원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으로 보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 불교총지종



##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                |                       |
|----------------|-----------------------|
| 공식불공           | 매일 오전 10시             |
| 자성일불공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 월초불공           | 매월 첫째 주 7일간           |
| 새해불공           |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
| 중조탄신일          | 매년 양력 1월 29일          |
|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
| 부처님오신날         | 매년 음력 4월 8일           |
|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
| 해탈절(우란분절)      | 매년 양력 7월 15일          |
| 중조멸도절          | 매년 양력 9월 8일           |
| 창교절            | 매년 양력 12월 24일         |

####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                 |                                                                                                                                                                                                |
|-----------------|------------------------------------------------------------------------------------------------------------------------------------------------------------------------------------------------|
| 새해불공            |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
|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음총야호사’로써 국민대안을 기원하는 불공. |
| 월초불공            |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
| 자성일 불공          |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 사원명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통리원    | 062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 (02)552-1080-3  |
| 수련원    | 28065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 (043)833-8133   |
| 동해중학교  | 4775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11번길15 (해대원동)    | (051)556-0281-2 |
| 사회복지재단 | 062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 (02)3452-7485   |
| 서울경인교구 |       |                               |                 |
| 관성사    | 0316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 (02)736-0950    |
| 밀인사    | 031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 (02)762-1412    |
| 법천사    | 13389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해대원동)  | (031)751-8685   |
| 벽룡사    | 0870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 (02)889-0211    |
| 시범사    | 21358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 (032)522-7684   |
| 실지사    | 01162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 (02)983-1492    |
| 정심사    | 02137 | 서울특별시 강북구 면목로 95길 26          | (02)491-6888    |
| 지인사    | 21436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 (032)528-2742   |
| 총지사    | 062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 (02)552-1080    |
| 충청전교구  |       |                               |                 |
| 만보사    | 35045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 (042)255-7919   |
| 법황사    | 61636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 (062)676-0744   |
| 해정사    | 28485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함곡로131번길5 (내덕동)  | (043)256-3813   |
| 흥국사    | 55049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복길5길 12 (효자동1가) | (063)224-4358   |
| 중원사    | 28065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 (043)833-0399   |
| 대구경북교구 |       |                               |                 |
| 개천사    | 41958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본산동)   | (053)425-7910   |
| 견화사    | 38009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 (054)761-2466   |
| 국광사    | 38145 |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 (054)772-8776   |
| 단음사    | 38843 |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 (054)333-0526   |
| 선림사    | 3754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 (054)261-0310   |
| 수계사    | 38048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 (054)745-5207   |
| 수인사    | 37705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 (054)247-7613   |
| 승천사    | 38129 |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 (054)746-7434   |
| 제석사    | 41237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 (053)743-9812   |
| 부산경남교구 |       |                               |                 |
| 관음사    | 4726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 (051)896-1578   |
| 단향사    | 53075 |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 (055)644-5375   |
| 덕화사    | 46547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 (051)332-8903   |
| 밀행사    | 50427 |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 (055)354-3387   |
| 법성사    | 48817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 (051)468-7164   |
| 삼밀사    | 49060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 (051)416-9835   |
| 성화사    | 48959 |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 (051)254-5134   |
| 실보사    | 44452 |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 (052)244-7760   |
| 윤천사    | 51257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 (055)223-2021   |
| 일상사    | 50409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 (055)352-8132   |
| 자석사    | 48245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 (051)752-1892   |
| 정각사    | 4775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 (051)552-7901   |
| 화음사    | 52707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 (055)755-4697   |
| 동해사    | 4775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 (051)556-0281-2 |



# 진언 밀법도량 정각사 득락전

“현생에 이고득락, 내생에 왕생성불”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진언생활 불교총지종 정각사

## 정각사

에서는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각사 득락전에는 극락왕생과 성불을 서원하는 아미타부처님과 좌우 협시 보살인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셨습니다.



## 영식(영가) 원불

조상영식, 조부모, 부모 등 영식(영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명복과 왕생성불을 개인 원불에 모셔 기원합니다.

**영구불 1기당 100만원(부부에 한해서 한 불상에 모실 수 있음)**

## 기제사 불공

설, 추석, 기제일 등 조상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처님께 추선 불공을 드립니다.

## 소원·축원불

불상에 가족의 이름을 올려놓고 건강과 소원성취,  
재난소멸 등을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축원불 1기당 10만원/1년)**



불교총지종 정각사

상담문의. 051-552-7901 /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정각사)